

인도네시아 한옥회 선교사 기도소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기도의 동역자님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 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하심에 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권능을 받고 계속하여 땅 끝 까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 소식을 드립니다

안중안 신학교 소식

이번 학기의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늘 저의 강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새롭고 떨리지만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으며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됨은 기도의 동역자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팬데믹 이후로 인도네시아의 많은 신학교들이 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안중안 신학교도 예외는 아니여서 이번 7월 신학기에도 40명의 정원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직도 여러 명의 신학생들이 장학금의 지원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약 25명). 이 일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신학교의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해결되어 나가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솔라 그라시아 유치원 소식

올 해는 플레이 그룹(영아반 3-4살)이 의외로 많아서 적은 교사의 수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나이가 어리기에 늦잠으로 못 오거나 아파서 못 오는 일 등으로 13명이 한꺼번에 오는 일이 적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영아반은 저희 유치원에서 매우 중요한 반이기도 합니다. 유아반이 (되기 전에 미리 예행으로 적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두 분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 한나절 영아반에서 돌봄을 받으며 기독교의 사회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영아반은 저희 교사들은 유치원의 발전의 예금을 하는 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유치원 교사 7명 모두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어린이 전도와 육성에 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말씀 중심의 결론을 꼭 잊지않는 명실 공히 기독교 교육 현장의 교육 기관으로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솔라 그라시아 유치원이 계속적으로 어린이 복음전파의 목적을 잊지않고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며 7명의 교사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신학기에도 유아반 20명, 유치반 15명 원아들이 잘 모집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숙사 소식



지금은 기숙사사역의 인원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더 집중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한편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2명과 대학원생 1명 그리고 신학생 2명을 집중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일반 교육을 위해서 잘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면 고등학생들은 3학년이 되고 대학원생은 논문을 쓸 예정이며 신학생들은 현재 논문을 쓰면서 1년 목회실습을 위해서 사역지로 나갈 예정들입니다.

또 7월에 신입학생 2-3명을 기숙사에 새로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모든 기숙사생들의 계획과 진로 그리고 새로 영입할 기숙사생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매우 빠른 변화와 발전들이 사회와 종교 그리고 경제와 과학 및 교육 등 여러부분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순간 순간 깊이 체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영역에서 선교사들의 역량과 필요들도 빠른 변화가 있으리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역영역에서도 계속적인 도전이 닥쳐 오리라는 예감들은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장래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을 다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소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3일 인도네시아에서 한옥희 선교사 올림